

모태범, 이번엔...

오늘밤 11시 스피드스케이팅 1000m 출전

쇼트트랙 심석희, 계주 결승 진출 등 다관왕 시동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첫 경기를 그린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모태범(대한항공)이 명예회복에 나선다.

모태범은 12일 밤 11시(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틀레트 아레나에서 열리는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에 출전한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말청' 이규혁(36·서울시청)도 같은 경기에 나선다.

모태범은 11일 열린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69초69로 4위에 그쳤다. 1차 레이스에서 1위 안 스페이컨스(네덜란드·34초59)보다 0.25초 뒤진 34초84의 기록으로 4위에 오른 모태범은 2차 레이스에서 뒤집기를 노렸지만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남자 쇼트트랙은 1500m 경기에 세 명이나 내보냈지만 불운이 겹치면서 역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유일하게 결승에 오른 이현빈(성남시청)은 2분16초466의 기록으로 7명 중 6위에 그쳤다. 신다운(서울시청)과 박세영(단국대)은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러시아 명 빅토르 안)는 샤를 아블랭(캐나다·2분14초985), 한현위(중국·2분15초055)에 이어 동메달을 땀다.

소치올림픽에서 선수단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금메달 후보'라며 기대하는 선수는 빙상 세 종목에서 각각 일가를 이룬 '여제 삼총사'다.

'피겨 여왕' 김연아(24),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 '쇼트트랙 차세대 여왕' 심석희(17·세화여고)가 주인공이다.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세화여고)는 지난 10일 열린 여자 500m에서 준준결승에 오르고, 박승희(화성시청)·공상정(유봉여고)·조해리(고양시청)와 함께 3000m 계주에서도 결승 진출을 이루며 다관왕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박승희와 김아랑(전주제일고)도 여자 500m에서 무난히 준준결승에 올랐다.

올 시즌 월드컵에서 1500m와 1000m 종합 순위 선두를 달리는 심석희는 왕멍(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마저 사라진 소치올림픽 여자 쇼트트랙에서 돌발 변수만 넘어선다면 무난히 2개 이상의 금메달을 수확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에는 김연아가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공인한 소치에 입성한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역대 최고점(228.56점) 기록을 보유한 김연아는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다.

10일 끝난 피겨 단체전에서 러시아에 첫 금메달을 안긴 율리아 리프니초카야가 최근 홈 이점까지 등에 업고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지만, 큰 무대 경험과 세밀한 연기력이 앞서는 만큼 2연패를 향한 기대감을 낮출 필요는 없다.

男 모굴 스키 "심봤다"

최재우, 결선 1라운드 10위 '새역사'...최종 진출은 실패

한국 스키에도 이제 세계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내밀 수 있는 선수가 생겼다. 남자 모굴 스키의 '신성'으로 불리는 최재우(20·한국체대)가 그 주인공이다.

최재우는 10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로사 쿠토르 익스트림파크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모굴 2차 예선에서 21.90점을 획득, 2위에 올라 총 20명이 겨루는 결선 1라운드에 진출했다.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가 올림픽 결선 무대를 처음으로 밟는 순간이었다.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윤재진이 한국 최초로 여자 모굴에 도전했으나 예선 최하위에 머물렀고, 2010년 밴쿠버에서 서정화(24·GKL)도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소치에서도 여자 모굴의 서정화와 사촌 동생 서지원(20·GKL)이 예선 탈락했지만, 바통을 이어받은 최재우가 마침내 결선 진출을 이뤄냈다.

앞서 결선에 직행할 10명을 먼저 가리는 1차 예선에서 15위에 이름을 올린 그는 2차 예선을 무난히 통과

하며 기대했던 결선 무대에 나섰다. 이어진 결선 1라운드에서는 10위에 오르며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10위는 한국 스키 선수가 동계올림픽 개인전에서 기록한 최고 순위이기도 하다.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한 최재우는 결선 2라운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다.

첫 번째 공중동작을 마치고 모굴 코스를 내려오던 중 발이 잘 맞지 않으면서 멈춰 서고 만 것이다.

결국 실격 처리된 최재우는 6명이 겨워 메달 주인공을 가리는 최종 라운드에 오르지 못한 채 2018년 안방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을 기약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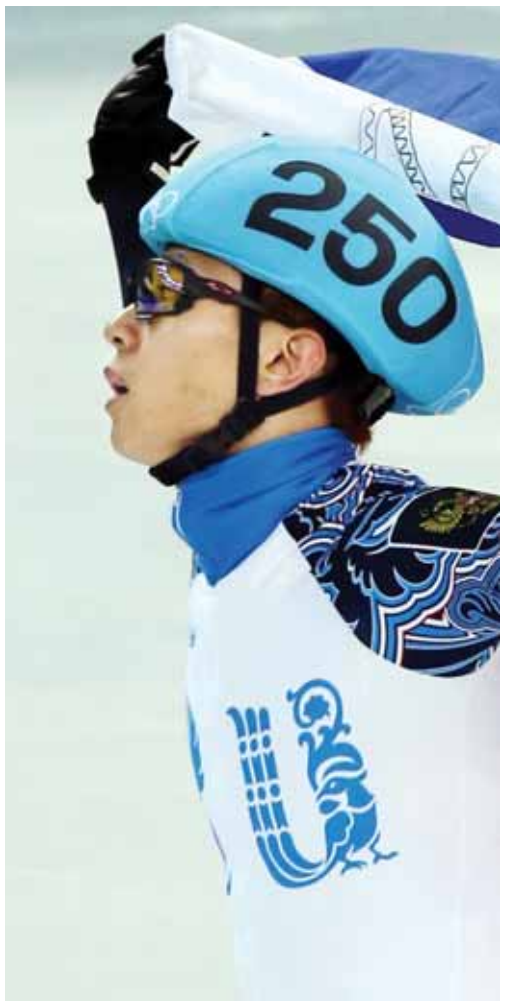
결선 최종 라운드 진출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올림픽은 최재우의 더 큰 잠재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탄을 보완하고 앞으로 더 많은 대회를 통해 경험을 쌓는다면 4년 뒤 평창에서는 '한국 스키 최초의 메달 획득'도 결코 꿈이 아닐 것이다.

"이 기분, 대한민국도 느끼고 싶다"



큰소리를 지르는 남자 스키점프 금메달리스트 카밀 스토흐(폴란드·위). 시상대에 폴짝 뛰고 있는 여자 3000m 스피드 스케이팅 동메달리스트 울가 그라프(러시아) 등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올림픽 무대 경쟁 즐거워"

러 귀화 안현수, 쇼트트랙 1500m 뽀

국적을 러시아로 바꾼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첫 종목부터 동메달을 따낸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는 "경기장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 선수들과의 경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현수는 지난 10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전을 마친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수들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에 있을 때에도 같은 한국 선수이면서 경쟁하고, 그렇게 실력이 좋아졌다"면서 "(불편하게 비쳐진 것이)후배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서슴없이 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즐겁게 올림픽을 치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현수는 러시아 선수로 올림픽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또 올림픽에 갈 수 있을까 의문도 들었는데 다시 큰 무대에 선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에 2006년 토리노 대회보다 즐기는 마음으로 치르고, 오늘의 동메달이 특별하게 다가온다"면서 "러시아에 첫 쇼트트랙 메달을 선사했다는 것도 특별하다"고 말했다.

안현수는 "당연히 선수로서 목표는 금메달이지만, 1500m 동메달에 실망하지 않는다"면서 "남은 종목을 편히 치를 수 있고, 500m와 1000m, 5000m 계주는 체력 부담이 적은 만큼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재활 안녕 ~ 150km 강속구로 부활의 날개 편다

수술·군복무로 5년만에 스프링캠프 KIA 이범석

"몸 상태 60%...귀국할 땐 90% 피칭 자신"

5년 만의 스프링캠프, 이범석이 부활의 날개를 폈다.

지난 8일 KIA 2군 선수단이 대만으로 훈련을 떠났다. 내달 6일까지 계속될 이번 캠프에는 투수 이범석도 동행했다. 스프링 캠프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2005년 프로에 데뷔한 이범석의 기록은 2005·2007·2008·2009년 4시즌 67경기 출전이 전부다. 통산 성적은 평균자책점 3.99, 7승15패2홀드. 2008년 1차례의 완봉승 포함 3.08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 10패 1홀드를 기록한 게 최고의 성적이기도 하다. 그리 특별하지 않은 기록에도 KIA와 팬들은 이범석을 놓

지 못했다. 마운드에서 만큼은 두려울 게 없던 천하무적 이범석을 잊지 못해서다.

두려움이 없는 선수였다. 150km대의 강속구를 앞세워 시원시원하게 타자들과 정면 승부를 했다. 혼신을 다한 거침없던 승부는 이범석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반하게 했던 그 거침없는 승부는 이범석에게 암흑의 시간을 안겨준 치명적인 독이기도 했다.

몸을 아끼지 않았던 피칭으로 어깨에 무리가 왔고 결국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군 복무와 재활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에게 2012년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선동열 감독의 호출로

2012년 마무리 캠프에 입성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기회와 욕심이 이범석은 다시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사이 이범석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져 갔고, 그의 부활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캠프는 특별하다. 컨디션은 최상이다.

이범석은 "하프 피칭을 하고 있는데 60% 상태의 몸 상태라고 보면 된다. 따뜻한 곳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이번 캠프에 참가하게 됐다"며 "계획대로 캠프를 다 소화하면 귀국할 때쯤 90%의 피칭을 할 수 있다. 무리해서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아프지 않고 한국에 들어오고 시즌을 준비하는 게 목표다"고 밝혔다.

앞선 2012년과 달라진 점은 '급할수록 돌아가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달라진 몸 상태다.

이범석은 "그때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던졌다. 지금은 어깨도 아프지 않고 몸도 가볍다. 운동이 아닌 스트레칭 등 기본적인 재활에 집중

했다. 재활운동을 9, 스트레칭을 1의 비율로 했다면 8개월 정도 재활을 하면서 스트레칭에 80%의 비중을 두고 재활을 했다"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운동이냐는 생각에 반신반의 했는데 한두 달 훈련을 하면서 몸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팔이 가볍고 유연성이 좋아지면서 아프지 않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언급했다.

컨디션도 좋고 강속구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만 예전의 이범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생각이다.

이범석은 "예전에 잘했을 때 경기를 종종 보기도 한다. 멋지다고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다시 마운드에 올라가면 예전처럼 너무 정직하게 던지지 않을 것이다. 몸 생각도 하고 많이 던지겠다는 생각으로 조절을 하고 싶다. 물론 경기에 나가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현명하게 공을 던지고 싶다. 우려를 하시는데 스피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150km 충분히 던질 수 있다. 최대한 아프지 않게 내 공을 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